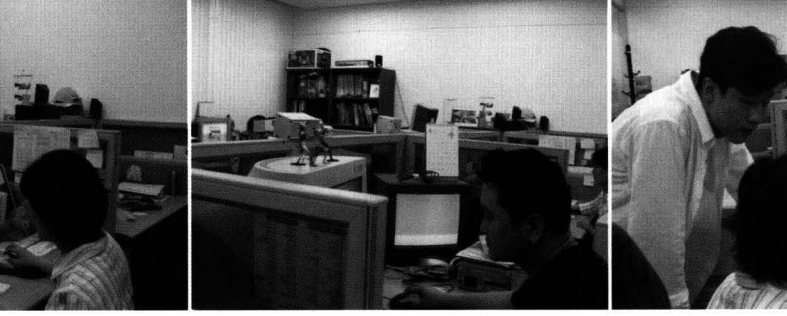


평면적인 책 소개에서 입체적인 책 소개로



인터넷 서점 YES24가 방송국을 만들었다. YES24 뉴콘텐츠팀의 강민호 팀장 설명에 따르면 '채널YES'가 만들어진 것은 YES24의 미디어적 성격과 커뮤니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다. YES24에 방문하는 일일 방문객이 평균 24만 명 정도인데, 보통 방문자들은 서점에 들어서서 두세 개 클릭하고 나가버린다. 이는 곧 필요한 책만 검토한 후 서점에서 나간다는 것을 뜻하는데 서점에 좀더 사람들을 머무르게 하는 의도로 고안한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현재 커뮤니티와 창조적인 콘텐츠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팀들은 공중파 방송국을 다닌 경력과 뮤직 비디오, CF, 영화를 만들던 사람들이 모여 있어 기존의 동영상보다 한 발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인터넷 서점에 들어오는 사람들끼리의 결속력을 만드는 부분을 담보하고 싶고 더 욕심을 내자면 가지적인 매출증대도 도모하고 싶습니다.”

현재 동영상으로 제작한 책의 경우 판매가 1.5배 정도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뉴콘텐츠팀에서는 2,3일에 책 한 권에 대한 동영상 제작을 하고 있고, 월 20편 정도를 제작하고 있다. 지금

클라이언트와 유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실무진 간의 의견 조율은 필수적이다. 뉴콘텐츠팀은 많은 대화를 통해 최상의 콘텐츠가 담긴 동영상을 만들어 간다. 그러기 위해선 실무진 스스로 유저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은 일단 초기단계라 보완해야 될 측면을 강화해 2,3개월 후 개편할 생각이다.

YES24 뉴콘텐츠팀에서 하는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동영상 제작과 오픈 인사이트, 그리고 e-book 제작이다. 오픈 인사이트는 표지를 클릭하면 16페이지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는 기능, 목차나 머리말 등에서 특정 부분을 클릭하면 그것을 확대해 보여주는 서비스이다.

팀이 꾸려진 것은 지난 해 12월 말이고 올 1월부터 업무에 들어갔다. 동영상 제작은 출판사에서 제작하고 싶다는 제의가 오면 선별한 후 편당 제작비 일백만 원을 받은 상태에서 진행한다. 현재 팀의 구성원들은 11명으로 오픈 인사이트, e-book 담당자 4명,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 1명, 작가 2명, 피디가 3명, 카메라가 1명이다.

동영상으로 만들 책이 일단 정해지면 주요 독자층 분석에 들어가고 책의 기획의도나 핵심내용을 파악해 인터뷰에 들어간다. 아직은 텍스트에 몰입하는 정도에 따라 작품의 편차가 크다는 점도 숙제이다.

“YES24가 시장점유율 면에서 웹서점 중 가장 앞서고

있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야지요. 경쟁이라 하면 서비스 경쟁과 가격 경쟁이 있을 터인데, 신속한 배송, 콘텐츠 확보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한편, 저희 팀처럼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희는 동영상 중심의 매출 요소가 앞으로 더욱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5월에는 책 순위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인데 기존에 만들어 놓은 동영상도 있으니 베스트 10을 선정해 짧게 편집하기도 하고 그 중에 중요한 한두 권을 소개하는 정보성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채널YES의 별도 도메인 서비스를 할 계획이기도 하다. **※※**

취재 양선희기자